

유무·시비 따지기 전 모든 알음알이 화두로 바뀌어야

혜국 스님

간화선 제일주의라는 지적에 대해

講論 ①

세 번째 법주 혜국 스님(종주 석종사 선원장, 전국 선원수좌회 대표)은 8월 17일 '간화선 제일주의에 빠져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는 주제의 법문을 했다.

스님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수행풍토에 대한 지적을 경계하게 받아들인다"며 "간화선을 부정하는 이는 부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한 것이다.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고 한다. 연기가 무엇인가?

플부터 출가, 환갑 진갑 할 것 없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혜국'이지, 내 고정된 실체는 없다. 흔히 연기를 설명하면서 '이것'과 '저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이것' '저것'이 아니다.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비롯해 《법화경》 《열반경》 《화엄경》 등에서 설한 법문을 두고 절벽과 같은 상태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던 적이 있다.

처음 선방을 찾아 전강 스님에게 '판치생모(板齒生毛)' 화두를 받았다. 전강 스님이 '판치생모'를 의심하라는 데 무엇을 의심해야 할지 몰랐다. 당시 나는 깨달음이 따로 있었다

는 아트만 사상에 젖어있었던 것 같다.

도저히 알 수 없었을 때 경봉 스님 회상을 찾게 됐다. 경봉 스님은 "어찌해서 '판떼기 이빨'에 달난 것을 화두로 하는가?"라며 "판떼기가 아니라 '앞이빨'에 달난 거다"라고 했다. 전강 스님은 분명 "판떼기에 달이 낫다" 했는데, 경봉 스님은 다른 말을 하길래 혼란스러웠다. 한자로 '판치생모'를 써서 명동 회교 학교를 찾아가 물었다. 판치생모가 앞이빨에 달난 것인지, 판떼기 이빨에 달난 것인지를.

어떤 노인에게 앞니가 판떼기 같다 해서 '판치'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송곳니는 개이빨처럼 생겨 겹쳐, 어금니는 식치, 앞니는 판떼기처럼 생겨서 판치, 전강 스님이 틀렸다고 생각해 전강 스님을 찾았다. 그런 내게 전강 스님은 "저 때려 죽일 놈"이라고 호통을 쳤다. 판떼기든, 앞이빨이든 말뿐으로, 아무 관계 없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아무래도 화두는 안 되겠다' 싶어 주력(주력)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철 스님이 '선방에서 주력하는 놈도 중이냐'며 크게 나무랐다.

그때 정리된 것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 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극미생으로 나아가 한 생각 이전의 자리. 이것과 저것을 포함한 중도가 '화두'라는 것이다.

화두에 대해 이론적으로 믿음은 가지지만, 생각만 뒀 뿐 따라갈 수 없었다. 한 생각 일어나는 이전 자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무척 애를 썼는데, 결국 참선하던 중 화두는 깨달아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알았다. 화두 자체는 앞뒤 전후좌우를 모르는, 사방이 모두 틀렸을 때라는 것을 알았다. "오직 모를 뿐"이 됐을 때가 중요하다.

이렇게 답답한 상태에서 조사스님들의 활구(活句)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요, 승통이 트이는 길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간화선에 대해 스님(1089~1163)에 이르러 새로 생겨난 수행법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대혜 스님 대에 와서 간화선이 정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면은 부처님 가르침인 '모든 유행과 무정이 모두 불성을 갖고 있다(一切有情無情皆有佛性)'에서 시작해 달마 대사에서 육조 혜능에 이르는 조사선,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일맥상통한다.

앞선 법석에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에 대한 지적이 오갔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스님들이 강원에서 처음 배우는 <치문>의 첫 구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으로 가득 차 생각의 세계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고 나온다. 내 몸안에 생각이 가득 있을 때 생각에서 벗어나기란 불가능하다. 무념(無念)·무상(無常)·무심(無心)이든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만이 "아차 내가 착각했구나"하고 알 수 있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은 꿈인지 알 수 없다.

간화선사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의 한국불교는 존재할 수 없었다. 숯한 법난과 중단분규 속



혜국 스님

“화두는 옛날·지금도 따로 없고 모양도 없는 것”

백장청규 정신 되살려 간화선 수행가풍 지키길...

에서 선택을 지켜온 것은 종단이 아닌 간화선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다. 나는 간화선이 목숨을 바칠 만큼 좋다. 이만큼 지행해온 것만으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최근 선방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프다.

내 생각이 업이지 내 생각을 벗어난 것은 없다. 수좌들에게 수행하는데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물으면 잠과 망상이라고 한다. 내 밖에 망상이 있다면 싸울 만 하다. 다만 안에 망상이 있다면 싸움수록 망상이 치상할 것이다. 싸움을 포기해보라.

내 생각 이전자리를 깨달은 분(부처님)이 보여준 소식이 '삼척전심'이다. 2000여 년 넘도록 명안 대종사들이 이어준 가르침을 안 믿는다면 불교의 근간을 흔들는 것이다. 무엇을 믿겠다는 것인가?

항봉 스님은 "내가 있는 자리가 중도(中道)"라고 했다. '나'가 있는 자라도 없어진다면 얼마나 더 좋겠는가? '나'는 본래 없는 것. '확연무상'이다. 대혜 스님 대에 간화선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간화선을 대혜 스님 대에 와서 정형화시켰지만 부처님의 삼척전심은 무엇을 보여준 것인가? 화두다. 말이라고 하는 상(相)이 생기기 이전을 보여준 것. 생각이전선을 그냥 보여준 것이다. 옛날 '화두'로 수행이 안 된다는 지적은 잘못이다. 옛날 화두, 지금 화두가 어디 있는가? 화두는 모양이 없는 세계가 아닌가?

3조 승찬 대사의 <신심명>에는 "지도무난 유행간택 단파중에 통연명백"하다고 했다. 조주 스님을 비롯한 후대의 선지식들은 <신심명>에서 5칙(則)의 공안을 들어보았다. 언어 표현방식이 다를 뿐 말과 생각이 끊긴 도리를 이미 3조 승찬 대사 당시에도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4조 도신 대사의 안심법문을 지나 5조 홍인 대사에 이르러서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구체적인 선문답 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사들은 표현 방법만 달랐지 3조 스님 때도, 그 후 화두는 일상이었다.

5조 홍인 대사가 "내게 한 물건이 있다"고 한 것과 '이렇고' 화두가 무엇이 다른가? 부처님 불법과 조사선과 간화선은 조금도 다를 것 없다. 다만, 간화선을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면 아쉽다.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법맥>에서 "원오가 대혜에게 수시한 일제 정종기의 한 구절 등을 교가(敎家)에서 주석 불이든 알음알이 따라 해석하면 가소로울 뿐만 아니라 본분종사들이 금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용 스님이 하루는 내게 물었다. "혜국 수좌, 조주 스님이 있던 관음원을 찾은 학자들이 잣나무는 없고 측백나무라고 했네. 자네는 어찌 생각하냐?" "스님, 저는 그냥 잣나무라 할랍니다."

측백나무와 잣나무는 모두 인간이 이름 붙인 것에

불과하다. 깨달음의 세계는 보는 눈이 남아있던 한 겹코 볼 수 없는 세계다. 생각이 끊어지는 자리를 바로 보여주는 말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도리가 보배로 있다는 것은 조계선택의 큰 자랑거리다.

화두에게 '나'를 전부 바쳐봤는가? 화두가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내 모습인 것은 제법무아의 '나'를 말한다. 하지만 나와 내 영혼, 내 마음과 내 마음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병통이다. 이것은 이 방의 허공과 저 땅의 허공이 다르다는 생각과 같다. 벽만 허물면 이 허공 저 허공이 하나가 된다. 이 허공이 없어진 것도, 저 허공이 없어진 것도 아니다.

참선 수행자가 가장 실수하는 것은 유무(有無)와 사비(是非)를 따지는 것이다. '나'가 있기에 유와 무가 있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아집의 벽이 있을 때의 이야기다. 나의 모든 알음알이를 화두로 바꿔나갈 때 비로소 '나'는 없어지게 된다.

뜨거운 눈을 쏟는 수좌가 적다. 수행풍토에 대해 지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는 선방의 문제이지, 간화선의 문제가 아니다.

선방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다. 선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 훤히 안다. 이를 어떻게 풀이하고 가야 할 것인가. 선방에서 치열하게 수행하는 900여 수좌까지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불교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문제는 선방까지 침투한 개인주의다. 선방까지 개인주의에 빠진 이유는 서구문명이 원인이자.

6세 때 서당을 다녔다. 훈장의 권위는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될 만큼 절대적이었다. 요즘 대학생들은 교수 스승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젊은이들이 출가해서 선방을 찾는다. 선지식이 없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노스님들을 공경하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노스님을 잔소리꾼으로 보다 보니 탁마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른 공경을 잃는 것은 선방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문제다.

해제비도 꼭 고쳐져야 할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잘못 전해지고 있다. 몇몇 절의 해제비가 수백 만원을 넘는 것은 문제지만 한 달에 15만원 해제비를 받는 절도 많다. 간화선 자체가 아닌 현금에 의해 일어나는 수행풍토에 대한 지적은 경계하야 할 것 같다.

돌이켜보면 한국불교 역사에서 인재불사는 등한 시켜 왔다. 선방에서도 인재불사를 고민해 교육원과 함께 <간화선>을 발간하고 3년째 <선원청규>를 편찬 중으로, 완성단계에 있다.

백장청규 정신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조계종이 종헌준법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백장청규가 생활화되기 어려웠던 점은 사실이다. 청규 정신이 되살아나 어른스님들이 어렵게 지키고 가꿔온 간화선 수행 가풍이 잘 지켜지길 바란다.

특별취재팀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기반

氣 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수행단체
심신수련단체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진 명품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격정 근심이 저절로 맑고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습니까? 맑은 쉽지만 꾸준한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영당이 모양의 인체공학적으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영당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음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기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림) 6cm]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입)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뒤틀림)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10% DC